



탐방 ②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꿈빛만의 도서관문화를 꿈꾸며

— 부천 꿈빛도서관을 다녀와서 —

박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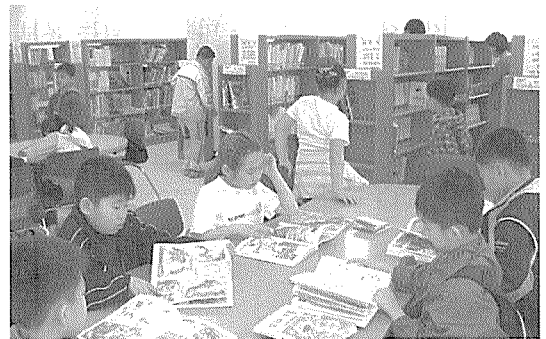
이름의 연유

우선 “꿈빛”이라는 이름이 특이했다. 어떤 연유에서 도서관이름이 된 것일까 궁금하여 한혜정 관장님께 제일 먼저 드린 질문도 이에 관한 것이다.

“개관 전 초창기 명칭은 서부도서관이었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지요. 우리 도서관은 부천시립중앙도서관의 3개 분관 중 하나입니다. 4개 도서관은 분야별로 특화자료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동자료를 맡아지요. 도서관의 성격과 어울리는 이름이라 생각되요.”

아동자료 특화 도서관

맞다. 그리고 보니 1층 도서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배치되어 있는 방이 유리문을 통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곳이 아동열람실·유아



〈 부천꿈빛도서관 아동열람실 〉

실이였다. 아동열람실은 65평 48석 규모로 마침 인근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견학 수업을 나왔는지 서가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며 책을 고르고 옆자리 친구와 함께 책을 보는 아이들로 시끌시끌한 풍경이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동열람실 오른쪽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유아실”은 절로 감탄사가 나올 만큼 공을 들인 곳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마루바닥의 재질, 아이들의 눈높이에 적절히 맞춘 아기자

* 한국도서관협회 팀장, 도서관문화 편집자, kapark@dreamwiz.com

기한 서가들, 인테리어 색감, 장난감 같은 세면대와 변기를 갖춘 유아화장실. 책을 읽지 않아도 아이와 함께 거닐며 이 책 저 책 들추어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다. 책 읽어주는 방도 따로 만들어 놓았고, 아이가 졸리면 편히 쉴 수 있는 유아 침실도 깨끗하게 꾸며 주었다. 우리가 방문한 시점이 월요일 이른 오전이라 매우 한가로와 보였지만 주말의 폭발적인 인기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천꿈빛도서관 유아침실〉

부천시 도서관 운영 현황

2000년 12월 말 현재 부천시 인구는 78만명이며, 총 4개(본관 1, 분관 3)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제일 먼저 세워진 도서관은 1985년 개관한 심곡도서관이며 수도권중심지로서 인구의 급증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늘어나는 독서인구의 지적욕구 충족을 위해 1994년 원미공원 안에 열람석 1,200석 규모의 중앙도서관이, 1999년에는 원미구 도당동에 북부도서관이 개관되었고, 2002년 9월 원미구 중3동 부천교육청 뒤에 꿈빛도서관이 장서 2만여권에 열람석 1,000석 규모로 개관되었다. 현재 4개관 총 장서 27만여

권을 소장하고 1일 평균 3,0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부천시는 4개 도서관을 각 도서관마다 특화자료(아래 표 참조)를 집중 수집하는 주제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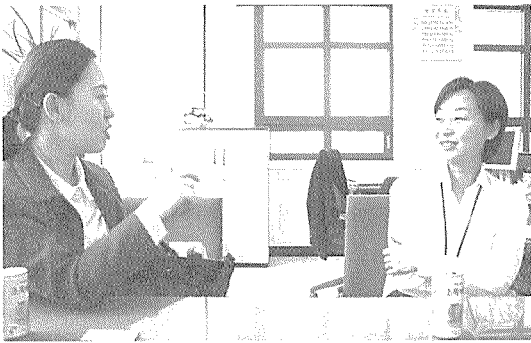
도서관별	부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북부분관	꿈빛분관
특화분야	기술과학·컴퓨터 분야	역사 분야	예술 분야	아동·사회과학 분야

그래서 꿈빛도서관도 4만여권의 전체 장서 40%는 꾸준히 아동 분야로 채워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부천시에 사는 어린이들은 보고 싶은 책을 찾아 꼭 꿈빛도서관까지 가서 대출을 해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었다. 자료의 통합구축과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 덕분에 어느곳에서나 대출·반납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천은 문고의 네트워크화도 활발한 편이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1개의 대출회원카드로 4개 도서관 뿐만 아니라 8개의 공립문고의 책도 대출·반납할 수 있다.

부천시립중앙도서관은 1993년부터 장서의 DB화를 시작하였는데 1999년도에 들어서는 자료서버장비를 도입하여 3개도서관의 자료를 통합구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웹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꿈빛이 아니고 잿빛이라구요?

중동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한 이제 개관한 지 6개월 정도 된 깨끗하고 아담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도서관을 둘러본 후 직원 사무실 문을 노



〈 대화 중인 한혜정 관장(右)과 필자(左) 〉

크했다. 방문객을 맞이해 주신 한혜정 관장님은 지난 20여년간을 부천 도서관 현장에 계시면서 오늘날의 체계적인 부천시도서관 운영 시스템 구축에 참여해왔으며, 꿈빛도서관 개관 이후 지난 6개월 동안도 부족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과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하셨다.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어 보았다. 하나는 주말이면 밀려드는 엄청난 이용자요 둘째는 열람실 칸막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라고 하셨다. 없는 직원에 토요일 일요일 1일 대출 책 수가 1천권이 넘는다고 하니 어느 누군들 배겨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3층 열람실에는 왜 칸막이 없는 책상을 두셨을까. 관장님도 어떻게든 도서관이 공부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실 없는 도서관으로 문을 열고 싶었으나 부천시를 설득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웠고 대신 열람실의 책상도 일반자료실의 것과 똑같은 책상으로 설치했다고 하신다. 결국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이 열람실 칸막이 설치 요청 민원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고 드디어는 꿈빛이 아니라 잿빛도서관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 도서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이용자들도 많다고 한다. 그 분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버티고는 있지만 왜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신다.

꿈빛만의 도서관문화를 꿈꾸며

부천시는 총 3개구 35동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립도서관 4개 중 3개가 원미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는 부천시를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현재의 4개관 외에 소사권역에 남부도서관(가칭)을 오정권역에는 수주도서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아침실이 있는 도서관. 칸막이 없는 책상이 있는 열람실. '도서관은 늘 이런 곳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꿈빛도서관의 독특한 모습은 생경할 수 있고 왠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천시 서른 다섯 개 동마다 도서관이 세워지고 도서관이 우리 일상에 더 이상 특별한 곳이 아닌 때가 오리라 믿으며, 오늘 꿈빛도서관을 이용한 우리 꼬마 아이들이 먼 훗날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오는 그 날까지 꿈빛만의 도서관문화가 이름만큼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소망하며 도서관 문을 나섰다.